

종전·정전·휴전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라고요?

Editor. 201721446 고혜빈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으로 작성한 '판문점 선언'에서

- ·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 연내 종전 선언,
- · 남북공동연락시무소 설치,
- · 이산기족 상봉 등을 천명했는데요,

1953년 6.25 전쟁 결과 계결된 정전협정 이후

65년째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기,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렸던 단어가 있었으니.



종전과 정전, 휴전은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외교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먼저 증전이란

'양국간 기속되던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전쟁당사국 간에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로,

종전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돼 전쟁당사국들간의 공식적인 외교 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정전(停戰)과 휴전(休戰)은 과거에 혼동돼서 많이 사용된 개념이라 뜻이 거의 같다고 알려져있지만, 명확히 구분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전은

전선에서 전투 중인 양국 군대가 무의미한 소모전을 멈추거나 협상을 시도하기 위해 잠시 교전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체 전선 중 일부 전선에 한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전면적으로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전으로





1914년 12월24일,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 이프르에서 맺은 '크리스마스 정전'이 있습니다.

서로 캐롤을 부르다 전선 군인들끼리 갑자기 맺어진 정전은 당시에도 크게 회자되었죠!

우리나라가 처한 휴전은

교전을 잠시 중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정부나 대표자들이 공식협상을 통해 전체 전선에서 전쟁상태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단계적인 정전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전쟁 당사국 대표들끼리 모여 휴전협정을 체결하는 수순을 가집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경의 전선을 마주보고 대치상태가 이어지기만, 전면적인 전투상황이 추가로 발생하진 않는

상태입니다!



1 6.25 전쟁 휴전협정서에 서명하는 김일성의 모습

종전·정전·휴전의 차이, 이해가 되셨나요?

판문점 선언을 통해 휴전상태를 벗어나 곧 종전이 될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